

무안군, 양파사주기 운동 수도권 진출 ‘본격 시동’

경기도 구리시와 교류협력으로 양파 9톤 판매

도시-농촌 교류 확대·이해 폭 넓어지는 계기

무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한 양파 사주기 운동 수도권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13일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상호결연 행사의 일환으로 양파사주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첫 양파사주기 운동이며, 이날

구리시청 공무원들과 전통시장 상인회, 시민단체는 농가 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양파 10kg 900방(9톤)을 구매했다.

군은 당초 구리시와 상호결연 체결식을 개최하고 시장 상인회 주관 하에 양파소비촉진 홍보, 고품질 브랜드쌀 홍보 등 농특산물 판촉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대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배부행사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확대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무안군은 도시 지자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우리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양파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구리시와 시장 상인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구리시와 함께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

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 대반마을 경계 결정

254필지 경계 심의·의결

목포시가 대반마을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2020년 대반마을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새롭게 등록해 지적 불합치점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김현미 판사를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대반마을지구 254필지 5만6천948.1㎡를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영암군이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부·시·군 부문 총 62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시·군 부문 42건 중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시·군 사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도민 평가와 직원 투표, 주제 발표 등 3가지 항목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계절과일인 무화과를 4개월 맛볼 수 있는 지역대표 먹거리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암은 전국의 생산량 56%를 차지하는 무화과의 주산지이자, 첫 재배지로서 무화과 주산지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홀홀’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힐링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민원담당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감성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숲속 스트레칭, 이완명상, 아로마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업무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 등을 치유하여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A주무관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 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고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함평군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24시간 무안민원발급 창구 운영 ▲민원사무편람 정비 ▲복합민원 상담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 전문 상담 등을 운영하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오는 30일까지 귀농·귀촌인 중심 농촌생활 소개 등 SNS 포스팅

영광군은 30일까지 ‘2021년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란 영광군민 중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농촌생활 소개, 살기 좋은 마을 발굴,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을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포스팅하는 서포터즈(supporter)를 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은 귀농귀촌한 마을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서 귀농·귀촌 관련 지역 정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생산·제공하여 도시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귀농·귀

촌인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접수는 방문(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전자메일로 7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시민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다”며 “동네작가들이 도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신청서는 영광군 및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350-5574)으로 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증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간담회

2년간 임기...복지대상자 발굴·문제 해결 특화사업 추진



신안군 증도면(면장 박재욱)은 지난 13일 증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협의체 주요 활동사항과 성과 등에 대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총 10명으로 꾸려진 이번 증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복지대상자 및 자원발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 외에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전문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체 역량교육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안미영 증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운영에 협의체 위원님들과 관의 적극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증도면 복지증진에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위해 위원장으로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면민 모두가 지역사회보장으로서 행복한 증도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신안=이덕주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